

은행

Analyst 설용진 s.dragon@skc.co.kr / 3773-8610

SK증권 리서치센터

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

- 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는 23년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 개수가 증가
 - 세부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자동차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부실징후기업 개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
 - 부실징후기업 관련 은행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나 제2금융, SOHO차주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대손비용 감소는 시기상조
- 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채권은행은 230개 회사를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 23년 231개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C등급 평가 기업 수는 감소했으나 D등급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C등급과 달리 D등급의 경우 정상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경기 부진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세부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업(22년 15개 > 23년 22개 > 24년 30개), 자동차업(22년 9개 > 23년 17개 > 24년 21개) 등 경기 민감 업종의 부실징후기업 개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경기 회복 지연 및 원가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 영향으로 한계 기업 경영 악화 심화되고 있는 상황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는 1.9조원으로 전체 신용공여의 0.07% 수준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9월 말 기준 총당금 추가 적립 추정액은 약 2,069억원이며 이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폭은 약 2bp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다만 상대적으로 은행권보다 취약 차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2금융권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SOHO 차주들의 부실 증가를 감안했을 때 본격적인 대손비용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예상

정기 신용위험평가 시계열 데이터

(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대기업	601	940	602	631	631	599	659	639	733	749	818
중소기업	1,609	1,934	2,035	2,275	2,321	2,708	2,849	2,734	2,855	2,829	3,210
부실징후기업											
대기업	34	54	32	25	10	9	4	3	2	9	11
C등급	11	27	13	13	5	3	2	3	2	7	4
D등급	23	27	19	12	5	6	2	0	0	2	7
중소기업	125	175	176	174	180	201	153	157	183	222	219
C등급	54	70	71	61	48	56	64	76	82	111	96
D등급	71	105	105	113	132	145	89	81	101	111	123

자료: 금융감독원

주: 대기업은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준, 중소기업은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기준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